

## 치주환자에서 라미네이트 치료의 유효성 (Crown Bridge vs Laminate)

대구에스타치과  
주상돈\*, 하상영

### 서론

과거 치주 질환으로 인해 치간 공극이 증가한 경우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을 하거나 교정 치료를 통해 치간 공극을 해소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bridge와 같은 고정성 수복물은 치아 삭제량이 많으며 교정 치료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치료의 대안으로 소개된 라미네이트는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삭제량이 적으며 교정치료에 비해 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욱이 환자고유의 적응된 다양한 overjet과 overbite를 보존하며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상악 전치의 lingual contour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는 CAD/CAM 장비를 이용한 라미네이트는 특히 undercut이 많은 치주 환자들의 치아를 광학인상을 통해 치아 삭제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원내 디지털 장비의 보급으로 원내 기공소를 갖춘 치과들이 많아지면서 당일 라미네이트 치료가 가능해지며 짧은 치료기간이 더욱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포스터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치주적 문제로 인해 시술을 받은 라미네이트 146개의 예후를 연구하였다.

### 결론

치주가 건강하지 못한 환자에게 치주치료와 함께 시행한 라미네이트의 5년, 10년 생존율이 건강한 치주를 가진 환자에게 시행된 라미네이트의 생존율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주적 원인으로 인한 치은 퇴축이 있는 환자의 전치부 심미 보철을 치주 악화로 인한 치간 이개 등의 예후를 고려하여 crown bridg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치주치료와 함께 시행한 라미네이트 치료의 정기 예후에서 치간 이개의 비중은 거의 없음을 이번 연구로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보철물 관리와 치주 건강 관리와 함께 envelope of function 를 유지함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미네이트는 오랜 시간동안 적응된 환자의 상악전치 설면을 보전하여, 하악 움직임을 유지하여 치주 관리와 더불어 장기 예후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